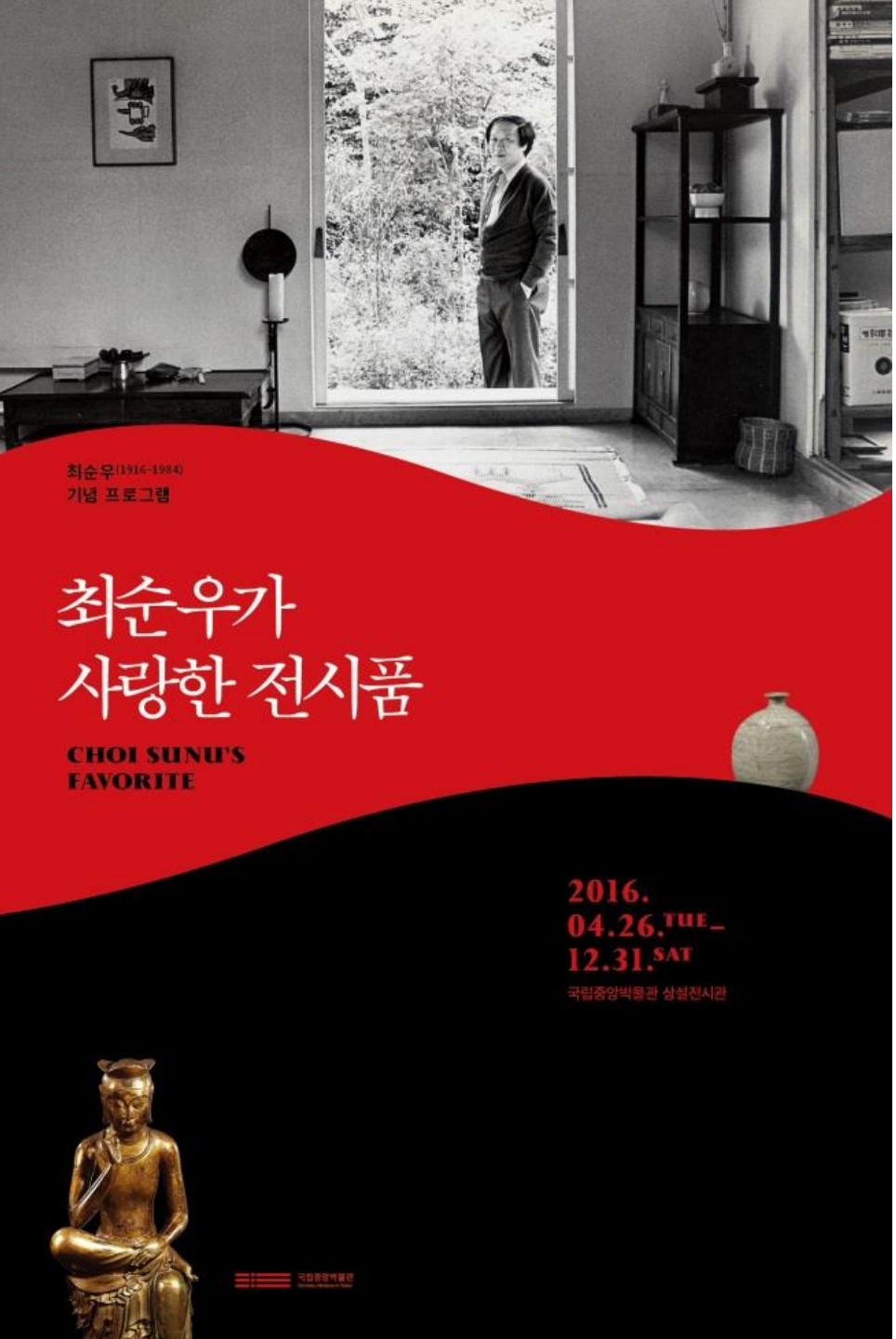


□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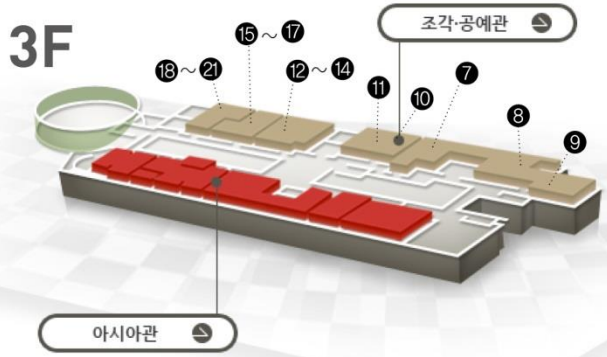
"최순우가 사랑한 전시품" 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찾고 알리며 박물관을 발전시키는 데 평생을 바친 미술사학자, 최순우(崔淳雨, 1916~1984)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순우가 아끼고 좋아했던 작품을 그의 글과 함께 소개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그의 생각과 애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설전시관 9개실 곳곳에서 최순우가 발견했던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문화의 멋과 향을 새롭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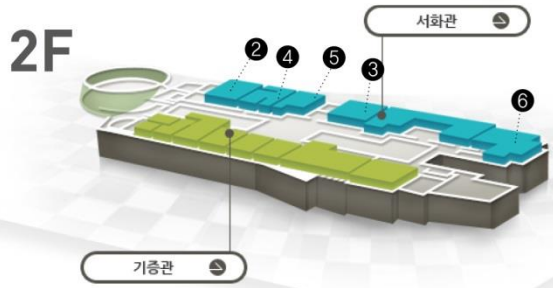
Homage to Choi Sunu, "Choi Sunu's Favor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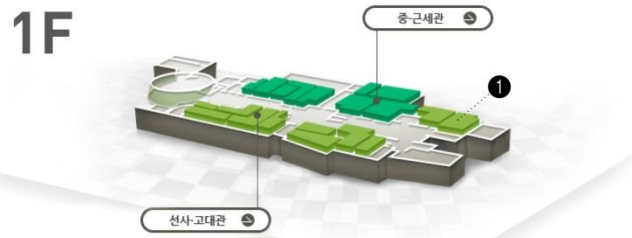
"Choi Sunu's Favorite" is a program that pays tribute to Choi Sunu (1916-1984), the art historian who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discovering and promoting the beauty of Korean cultural treasures and fostering the museum. By presenting works that Choi had cherished, together with his writings, the program allows visitors to understand his thoughts and affection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We hope that visitors will enjoy and appreciate the beauty of Korea that Choi Sunu had discovered in our collection and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llure of Korean art and culture by viewing his favorites across the nine permanent galleries.

최순우가 사랑한 전시품 상설전시관 전시품 위치

CHOI SUNU'S FAVORITE







전시품 위치와 목록

3F

불교조각실 (301) ❼〈반가사유상〉, ❽〈불두〉, ❾〈불좌상〉
금속공예실 (302) ❿〈물가풍경무늬 정병〉, ⓫〈매화무늬 담배합〉

청자실 (303) ⓬〈인삼잎무늬 매병〉, ⓭〈석류모양 주자〉, ⓮〈모란무늬 항아리〉
분청사기실 (304) ⓯〈모란무늬 자라병〉, ⓰〈모란무늬 편병〉, ⓱〈연꽃 물고기 무늬 병〉
백자실 (305) ⓲〈매화 새 대나무무늬 항아리〉, ⓳〈소나무매화무늬 연적〉, ⓴〈풀무늬 항아리 〉, ㉑〈달항아리〉

2F

서예실 (201) ❷ 김홍도, 〈김홍도서첩〉 (4월~10월)
회화실 (202) ❸ 김두량, 〈긁는 개〉 (4월~8월)
❹ 김명국, 〈달마도〉 (7월~10월)
❺ 이인문, 〈산수도〉 (11월~12월)
목칠공예실 (204) ❻〈나전칠 봉황 꽃 소나무무늬 빗접〉

1F

통일신라실 (111) ❶〈돌함과 뼈단지〉

돌함과 뼈단지 [藏骨容器] , 통일신라 9세기,
돌함 높이 43.0㎝, 뼈단지 높이 16.4㎝, 국보125호

"통일신라시대에는 화장법이 유행함에 따라 토기 골호가 많이 구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녹유골호는 드물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유색이나 유조가 이처럼 초록색으로 곱고 고르게 나온 예는 없었다. 승렴문(繩簾文)과 초화문(草華文)을 인화(印花)한 화사한 장식과 무던스럽게 빚어낸 둥근 형과 선의 감각은 한국적인 양식을 신라인들이 보여 준 좋은 예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골호에 이렇게 정성들인 석함이 딸려있는 좋은 예이며 아울러 이것은 앞으로 당당한 우리나라 '지정국보'의 하나로 손꼽게 될 것이 기대된다고 해야겠다."

- 최순우, 「녹유골호」, 『한국일보』(1966.5.31)

김홍도의 글씨첩[金弘道筆書帖], 조선 18-19세기 초,
세로 34.9 ㎝, 가로 23.6 ㎝

최순우는 이 서첩을 조사하여 단원 김홍도의 생몰년을 새롭게 밝혔다. (최순우, 「단원 김홍도의 재세년대고(在世年代攷)」, 『미술자료』 11(1966))

'오수당(午睡堂)' 은 '낮잠자는 방' 이라는 뜻으로 김홍도의 당호(堂號)로 추정된다. 최순우는 1976년 성북동 한옥으로 이사하면서 자신이 연구했던 김홍도서첩의 <오수당>을 판각하여 사랑방 현판으로 만들었다. 현재 이 현판은 혜곡최순우기념관(최순우옛집) 사랑방 뒷문 위에 걸려있다.

* 일러두기

최순우의 글을 발췌하면서 원문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원문의 한자표기를 국문과 병기했고, 오자를 정정했으며, 일부 생략하였다. 글 아래쪽에 원문의 출처를 밝혔다. 전시실에 비치된 최순우의 글카드는 이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김명국, <달마도達磨圖>, 조선 17세기,세로 83.0 ㎝, 가로 57.0 ㎝

"달마하면 문득 김명국이 그린 달마상의 얼굴이 머리에 떠오른다. 비상한 속도로 이루어진 젖은[淋漓] 붓자국이라든지 단숨에 그렸으면서도 터럭 하나에도 한 점의 덧붓질이나 뇌까림이 없는 원숙한 솜씨에서 나는 동양의 수묵화가 지니는 선과 획의 높은 지체를 본바닥부터 한눈에 보았다는 감동이 깊었다. 한국 그림으로서는 드물게 기개가 충만할 뿐더라 그 부리부리한 두 눈과 짙은 수염의 거친 느낌이 신기스러울 정도로 거친 생명감을 발산하는 듯 싶다."

- 최순우,「김명국 달마상」,『독서신문』(1970.12.20)

김두량, <긁는 개[黑狗圖]>, 조선 18세기,세로 23.0 ㎝, 가로 26.3 ㎝

"이 개 그림은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차원 놓은 해학을 보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가려운 데를 발로 긁적거리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개의 모습에 익살기가 넘나고 있으며 이러한 화흥(畵興)을 일으켰던 남리의 인품이 엿보여지는 듯도 싶다."

- 최순우,「남리 김두량 작, 견도(犬圖)」,『서울경제신문』(1974.2.23)

산수도[指頭山水圖], 조선 19세기, 세로 98.5 ㎝, 가로 53.9 ㎝

"이인문의 만년의 그림에는 붓자국 하나하나에 골기(骨氣)라고도 부를 수 있는 힘이 맺혀 있으며 농담(濃淡)을 가려서 쓴 먹색의 깊은 맛이라든지 그의 독특한 담채(淡彩)에서 오는 갓맑고 투명한 색깔 등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대가의 조촐한 풍모를 보는 듯싶은 것이 상례이다. 한국인만이 지닌 소박하면서도 가락이 짙고 또 투명하고도 담담한 색감에서 누구보다도 뚜렷한 한국작가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

- 최순우,「고송유수관도인 이인문의 산수도」,『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나전칠 봉황 꽃 새 소나무무늬 빗접[螺鈿箱], 조선 18~19세기,
높이 27.0 ㎝, 너비 26.7 ㎝, 길이 27.4 ㎝

"수다스러운 듯 싶어도 단순하고 화려한 듯 보여도 소박한 동심의 즐거움을 표현한 점이 한국 민속 공예의 장식무늬가 지닌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나전칠기도 언뜻 보면 별것 아닌 듯 싶지만 여간한 멋과 가락이 스며 있는 것이 아니다. 소나무에 대나무 가지가 돋았는가 하고 보면 대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가 아래 위에서 서로 엇갈려서 우연이 아닌 멋가락을 피워 주고 있다. 하늘과 좌우 공간에는 낙엽도 같고 뜬구름도 같아 보이는 조각 구름들이 드문드문 장식되어 있고, 좌우의 가지에는 서로 바라보며 도란거리는 겉부시시한 새 한 쌍이 있어서 이 풍경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다.“

- 최순우,「나전칠기송죽무늬함」,『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반가사유상[金銅半跏思惟像], 삼국 7세기 전반,높이 93.5㎝, 국보83호

"슬픈 얼굴인가 하고 보면 그리 슬픈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미소짓고 계신가 하고 바라보면 준엄한 기운이 입가에 간신히 흐르는 미소를 누르고 있어서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함을 뼈저리게 해 주는 것이 이 부처님의 미덕이다. 단순화된 삼산보관 양식과 너그러운 이맛전 그리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조촐한 입매에서 풍기는 담담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어질고 너그러운 한국인의 핏줄을 느끼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환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최순우,「미륵보살반가상」,『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철조불좌상鐵造佛坐像, 고려 10세기,
불신높이 281.8 ㎝, 무릎높이 213.0 ㎝, 대좌너비 143.0㎝, 보물332호

"앉은 키의 높이가 2.81m나 되는 보기 드문 대작이어서 어질고도 자비로운 성자의 모습에 한층의 위엄을 더해준다. 뿐만 아니라 촉지항마인(觸地降魔印)의 수인(手印)이 의미하는 보이지 않는 절대의 힘이 방안 분위기의 장엄함을 한층 조성해준다는 느낌이다.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을 앞에서 우러러도 좋지만 고요한 시간에 먼 곳에서 옆 얼굴을 바라보노라면 일점 속기 없는 신비로운 검은 영상이 마치 슬픈 마음처럼 가슴을 일렁이게 해 줄 때가 있다. “

- 최순우,「철조석가여래좌상」,『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철조불두(鐵造佛頭), 고려 10세기, 높이 38.5㎝

"이 부처님을 보는 순간 나는 가벼운 마음의 흥분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대번에 좋아졌다. 너그럽고도 앳된 얼굴의 싱싱하면서도 그윽한 미소 속에 스며진 더도 덜도 할 수 없는 참사랑의 간절한 뜻이 내 마음을 훈훈하게 어루만져 주었던 것이다. 어디에선가 만난 일이 있는 듯도 싶은 어진 얼굴,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듯싶은 표준 한국인의 이 얼굴은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람들이 이상(理想)하는 사나이였으며 우러르고 싶은 남성상의 본보기였다고 믿고 있다. 마음이 어두울 때 바라보면 그 얼굴은 내가 네 마음 속을 헤아리노라 하는 듯, 혹은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굽어보는 것 같다."

- 최순우, 「철조여래불두」, 『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물가풍경무늬 정병[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甁],고려 12세기,
높이 37.5 ㎝, 입지름 1.1 ㎝, 몸통지름 12.9㎝, 바닥지름 8.6 ㎝, 국보92호

" '맵자하다'는 말을 에누리없이 쓴다면 아마 이러한 고려 청동정병이 지니는 날씬하고 세련된 매무새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정병은 청동 바탕에 은실로 호수 언저리의 한가로운 자연 정취를 새겨놓은 보기 드문 가작으로 지금은 녹이 나서 연두색으로 변색한 바탕에 수놓아진 은색의 산뜻한 색채 조화가 우선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다. 수양버들 긴 가지들이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늪가에는 갈대숲이 듬성듬성 우거지고, 물 위에는 한가로이 떠 있는 산오리들, 늪으로 날아들고 날아가는 기러기떼들이 동양화다운 포치로 아취있게 새겨져 있다. "

- 최순우, 「은입사동제정병」, 『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매화무늬 담배합[鐵製銀入絲梅花文煙草盒], 조선 19세기,높이 8.0㎝

"검은 쇠빛 바탕에 새겨진 자은색의 무늬들이 주는 조촐하면서도 은은한 배색도 묘하고, 그 도안 자체도 거의 문인화적인 풍류를 싣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거멍쇠 공예품들은 호사를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서민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이들에게 선호되었다. 수수한 듯하면서도 내재적인 기품이 깃들이고 무딘 것같이 보이면서도 깔끔한 성깔을 감춘 듯 싶은 이 거멍쇠 은입사 공예품들은 어찌 생각하면 지조 있는 한국인의 심상을 보는 듯싶다."

- 최순우,「은입사 거멍쇠 담배함」,『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인삼잎무늬 매병[靑磁鐵彩堆花蔘葉文梅甁], 고려 12세기,
높이 27.6 ㎝, 입지름 4.9 ㎝, 몸통지름 16.7㎝, 보물340호

"고려시대 철채자기 같은 격있는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고려 사람들의 멋은 단수(段數)가 높구나 싶어지는 것이다. 맑고도 깊은 청자의 푸른 빛을 숭상하던 고려시대 상류사회 사람들의 안목에 이러한 고담한 멋의 일면도 곁들여져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검은색인가 하고 보면 검푸르고 검푸른가 하고 보면 짙은 수박색이 은은히 감도는 이 철채유의 깊은 맛은 마치 돌버섯과 이끼를 머금은 태고의 검은 바위 살결인 양 그 숨은 뜻과 입김이 고려 지식인들의 마음처럼 아득하고도 또 가깝게 느껴진다. "

- 최순우,「철채자기삼엽문매병」,『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석류모양 주자[靑磁石榴形注子], 고려 12세기,
높이 18.3cm, 최대지름 17.6㎝

"자연계의 물상을 상형해서 만든 사기 그릇이 실용에도 쓸모있고 놓고 보아도 편안해 보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석류주전자는 가작(佳作)의 하나로 고려 도공들의 공예 조각 솜씨가 보통이 아님을 보여준다. 귓대부리 근처에 석류 잎새들이 두어 개씩 붙은것이라든가 석류의 몸체에 백퇴화문을 찍어 석류알의 노출된 모양을 표현한 점도 그 장식 효과를 자연스럽게 해 준다. 가을이 되어 석류 열매가 익어가면 석류 열매는 저절로 배가 터져서 붉은 석류알이 알알이 노출되기 마련인 까닭이다."

- 최순우, 「청자석류주전자」, 『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모란무늬 항아리[靑磁象嵌牡丹文壺], 고려 12~13세기,
높이 19.7cm, 입지름 19.7cm, 최대지름 34.5㎝, 국보98호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시원스럽다든가 호연(浩然)하다든가 하기보다는 곱다, 조용하다, 간열되다는 식의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늠름한 자세와 환한 얼굴로 그러한 상식을 고쳐주는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고려 청자들의 연약해 보이는 곡선도 태평스럽지 못한 앉음새도 이러한 작품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시고, 크고도 안정된 굽다리 위에 탐탁스러운 몸체가 편안하게 앉아서 넓은 입을 호연하게 벌리고 있는 품이 마치 속이 얼마나 편안한가를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

- 최순우, 「청자상감모란문항아리」, 『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모란무늬 자라병[粉靑沙器剝地鐵彩牡丹文甁],조선 15세기,
높이 9.4cm, 지름 24.1㎝, 국보260호

"이 자라병은 시대적인 호흡을 가장 싱싱하게 나타낸 작품으로써 참신한 도안과 청초한 색감이 사뭇 현대감각을 느끼게 할만큼 새롭다. 무늬의 기법은 박지문(剝地文)으로, 몸체 바탕 위에 백문을 씌워서 본 바탕을 화장한 후 대칼같은 꼬챙이로 긁어서 무늬를 버리고 그 위에 유약을 씌워 구워낸 것이다. 긁어낸 위에 철분이 많은 도료를 붓으로 발라 구웠기 때문에 바탕색은 마치 잘 익은 수박색(심록색)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색채의 조화가 한층 신선하고도 품위있어 보인다."

- 최순우, 「분청사기초화문자라병」, 『국민신문』(날짜미상)

모란무늬 편병[粉靑沙器彫花牡丹文扁甁], 조선 15세기,
높이 22.1cm, 지름 4.8㎝

"추상의 아름다움이란 야릇한 매력을 지닌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산새들의 노래소리를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상 미술은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마음 속에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준다. 이 분청사기병의 추상무늬도 아무 뜻도 비밀도 스며있지는 않다. 다만 도공이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흥겹게 찍은 선과 점이 어울려서 쾌적하고도 근대적인 미의 화음을 울려주고 있을 뿐이다."

- 최순우, 「분청사기추상문편병」, 『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연꽃 물고기무늬 병[粉靑沙器鐵畫蓮魚文甁], 조선시대, 높이 29.7 ㎝

“귀얄로 발라진 백토 바탕 위에 주저없는 필치로 그린 꽃이나 구름, 새나 물고기 같은 무늬들을 보면 익살스럽기도 하고 어리광스럽기도 해서 속이 후련해질 때가 가끔 있다. 어른들의 솜씨로 보면 너무 치기가 넘치고 어린이의 일로 보면 그 동안의 짜임새나 필력은 마치 요즘 화가들의 멋진 소묘에 비길 만도 해서 사뭇 근대적인 감각을 느끼게 해 준다.”

- 최순우,「분청사기철화어문병」,『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소나무 매화무늬 연적[白磁靑畫松梅文硯滴], 조선 15~16세기,
높이 7.7 ㎝, 바닥지름 6.3 ㎝, 몸통지름 11.7㎝

"한국의 연적은 대개는 수수한 모습에 너그럽고 조촐한 선비들의 기개를 드러낸 작품들이 많다. 이 천도형연적은 크고 안정된 굽다리와 작고 맵시있는 귓대부리가 대조적이지만 수수한 몸체에서 돋아난 하나의 애교로서 그 몸체와 잘 어울리는 것이 미소를 짓게 한다. 조선 초기의 백자연적에 청화 그림을 그린다는 일은 매우 드물며 마치 수묵을 쓰듯 회화적인 감정을 담뿍 싣고 그려 놓은 문기 높은 청화색 검푸른 소나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속이 후련해진다. 옛 도공은 이 연적의 주인이 이 그림을 바라보며 조석으로 솔바람 소리를 즐기라고 했다는 말인가.”

- 최순우,「청화백자선도연적」,『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매화 새 대나무무늬 항아리[白磁靑畫梅鳥竹文壺], 조선 15~16세기,
높이 16.5 ㎝, 입지름 6.2㎝, 국보170호

“중국 명대 성화(成化), 가정(嘉靖) 연간에 속하는 청화백자호의 여운이 짙은 작품이다. 다만 명대 항아리의 곡선은 대개 풍요한 어깨부터 밋밋하게 굽다리 쪽으로 좁혀진 데 비해서 이 항아리는 허리 아래에서 곡선이 안으로 우아하게 휘어들면서 이조 항아리의 독특한 곡선미의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매화와 새 그림에 가을품을 그려 넣었는데 검푸르면서도 부분적으로 멍울진 청화빛 짙은 맛이 느껴진다.”

- 최순우, 「고려, 조선 도자의 신례(新例)」, 『고고미술』 118(1973)

풀무늬 항아리[白磁鐵畫草文壺], 조선 17세기,
입지름 14.3 ㎝, 높이 30.2 ㎝

"풀인가 하면 풀도 아니요 꽃인가 하고 보면 꽃 무늬도 아닌 거의 추상에 가까운 그림을 은은한 백자 바탕 위에 주저없이 활달하게 그려 넣어서 마치 근대 감각에도 통할 수 있는 발랄하고도 신선한 아름다움을 이룬 것이다. 자유스러운 표현과 아첨하지 않는 소박한 미의식 속에 이루어진 철화자기 그림들은 분청사기 도안과 아울러 조선시대 도예미의 이채로운 존재이며 그 어느 경우보다도 민족 기질이 가장 짙게 발로된 분야였다. 어찌 보면 너무 거칠고 소홀한 그림이라는 느낌도 들지 모르지만 신선하고도 빠른 붓 자국 속에 감추어진 도공들의 기지와 흥겨움이 물살치고 있는 듯만 싶어진다."

- 최순우, 「백자철회초문항아리」, 『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달항아리[白磁壺], 조선 18세기,
높이 46.0cm, 입지름 20.3cm, 바닥지름 15.0cm, 몸통지름 46.0㎝

"한국의 흰 빛깔과 공예 미술에 표현된 둥근 맛은 한국적인 조형미의 특이한 체질의 하나이다. 더구나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들에 표현된 원의 어진 맛은 그 흰 바탕색과 아울러 너무나 욕심이 없고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지닌 가식 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백자항아리의 흰색은 우리 민족의 성정과 그들이 즐기는 색채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백의민족이라 스스로 불러 보기도 했는데, 우리네의 흰 의복과 백자항아리의 흰색은 같은 마음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겠다."

- 최순우, 「백자 달항아리」, 『韓國美 한국의 마음』(1980)

□ 최순우(1916~1984)

최순우는 개성 출생으로 본명은 희순(熙淳), 호는 혜곡(兮谷)입니다. 1945년 개성부립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 수집과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순우는 한국전쟁 중에 우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일협정 당시 우리문화재 반환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내외 특별전을 개최하여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1974년에 제 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취임하여 1984년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도자기, 목공예, 회화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저술한 글은 『최순우 전집(전5권)』,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등으로 엮여졌습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최순우의 남다른 심미안과 탁월한 해석은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순우가 사랑한 전시품
Choi Sunu's Favorite

관람 안내
전시기간 2016.04.26.(화)~12.31(토)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9개 전시실

화·목·금 09:00~18:00/ 수·토 09:00~21:00
일·공휴일 09:00~19:00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관람요금은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연계 강연회
정양모, "최순우 선생의 박물관사업과 한국미술사 연구의 의의"
일시 2016.05.18.(수) 15:00~17:0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혜곡최순우기념관(최순우 옛집) 안내
최순우 선생이 사시던 옛집(등록문화재 제268호)으로 시민들의 후원과 기증으로 보존된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시민문화유산 1호입니다.

개관 4~11월, 화~토요일, 10~16시(관람료 무료)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5길 9

자세한 사항은 기념관 누리집(http://choisunu.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이 그린 최순우 60세 초상